

김문수 “임금체불 청산·사업주 엄벌… 노동약자 보호할 것”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 간부회의 열고 첫 업무 지시
체불청산 제1의 직무 모든역량 투입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대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을 주문하면서 노동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이번 긴급 간부회의는 노동약자보호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그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황을 매일 점검할 것”이라면서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책임자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 27번째 임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약자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

대 적용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법을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과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2차레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약자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말이다. 경사노위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강조한 노동개혁 상당수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

대형마트서 ‘한우 반값’

대한민국 牛프라이즈 세일 실시

다음주까지 전국대형마트와 온라인 매장에서 한우 가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9월 2일 ~ 13일까지 12일간 전국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우 세일 행사는 전국 1642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 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다. 매장별 할인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판매한다. 참여업체별 할인 주력품목은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부위가 다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달도 늦더위 지속”… 발전기 정비일정 전면 재검토

산업부, 전력수급 점검회의 개최
폭염·태풍 영향에 수급 안정화 총력

역대 최대 폭염과 태풍 영향으로 지난달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갱신한 가운데, 9월에도 늦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전기 정비일정이 전면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에도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31일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수원과 발전 5사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갖고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검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첫 주 평년기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니터에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온이 전년대비 높을 확률은 60%, 둘째 주는 40%로 예상된다.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기간은 7월 셋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로 발전설비를 최대도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인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9월 둘째 주까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9월 첫 주에는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 정비를 1~2주 순연해 공급능력을 2기가와트(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해, 10GW 이상 예비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전력수요는 97.1GW

까지 높아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여름철 최대수요 기록인 93.6GW에 비해 1년 만에 3.5GW나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요도 지난해 첫 100GW를 넘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높은 103.5GW까지 증가했다.

안덕근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최대수요는 열대야 등 누적된 더위, 태풍 종다리로 인한 태양광 발전량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8월22일)가 지나고 아침이슬이 맺힌다는 백로(9월7일)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예년에 비해 이상고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규칙 개정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규제가 완화된다. 수소 생산 등 국내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진다.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추석 가까워질수록 사과·배 가격 ‘저렴’

농식품부, ‘소비자단체 소통협의회’

가격이 급등한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올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저렴해질 전망이다. 가격이 높은 시금치의 경우 9월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 실행위원이 참여하는 ‘2024년 제4차 소비자단체 소통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1일 밝혔다.

소비자단체 소통협의회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주요 현안과 소비자 관심 이슈를 소비자와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과 함께, 사과·배 등 성수품 수급전망과 공급 확대 방안, 최근 가격이 높은 시금치에 대한 생산·공급 전망을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소비자단체에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출하물량이 더욱 증가해 가격도 더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과일 구매시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도 적극 관련 정보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대환 기자